

후두미세수술후 지속적인 음성장애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명상*, 표화영, 최홍식, 김영호, 김광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음성언어의학연구소

1996년 10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안·이비인후과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 음성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중 성대양성질환으로 성대미세수술을 시행하고 음성검사를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환자는 총 85명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수술시 병명, 수술시 레이저(laser)사용유무, 수술후 발성장애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그 중 수술후 지속적인 혹은 반복적인 발성장애를 보인 환자는 총 12명으로 발성장애의 원인과 치료의 종류 및 치료효과를 판정하기위해 후두비디오스트로보스코피 검사, 청각심리검사 및 음성분석을 확인하였으며 통계처리를 하였다.

후두 진단 결과 지속적인 후두음성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면 postop scarring이 4례로 가장 많으며 recurrent mass lesion이 2례, inflammation이 2례, residual mass lesion이 2례 false vocal cord hyperadduction이 2례순이었으며 6명에게는 약물치료 및 음성휴식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6명에게는 음성치료 및 수술을 시행하였다.

약물치료 및 음성휴식을 시행한 6례의 경우에는 치료전·후의 GRABS, MFR, MPT, Jitter, Shimmer, H/N등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변하지 않았으나 음성치료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각 parameter의 경우에는 의미있게 변하였으며 그 중에 특히 GRABS($p=0.26$), MPT($p=0.28$), MFR($p=0.28$)가 더욱 더 의미있게 변하였다.

그러므로 성대미세수술후 지속적인 음성장애를 보인 환자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의 결과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